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4월 28일 (제1000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지령 1000호를 맞으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독재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펜을 쥐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글의 힘은 참으로 막강하기 때문이다. 글이란 한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잔재가 남기 때문이고, 또 민초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데 글 이상이 없기 때문이다.

복음 역시 글로써 맥을 유지해왔다. 1500년 동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약 40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2000년, 새 천년을 맞으면서 내가 시작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신문(Jesus Centered News)이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 오늘날 신앙의 지침서요 전도지가 되었듯이 글을 통한 구령사업을 구상했던 것이다.

그 신문이 오늘 1000호를 발행했다. 햇수로 20년을 왔다. 그저 감사할 뿐이다. 이 신문은 우리 교회의 역사요, 일지(日誌)로서 뿐 아니라 천국의 광고지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나는 자부한다. 우리 교회 신문을 보고 회심하는 자도 있고, 이 신문을 통해 신앙을 회복하는 자도 있고, 신문으로 예배드리는 곳도 있다 하니 20년의 세월이 덧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 더욱이 개인적으로는 늘 이 신문이 나를 채찍질하기에 오늘에 이르렀다 당당히 고백한다. 바라건대 심기일전하여 더욱 좋은 신문, 유익한 신문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지침서를 글로 써서 오늘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명약이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좋은 글을 적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좌절한 자를 일으키며, 상심한 자를 치료했으면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동참해준 많은 집필자들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끝으로 오늘의 신문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며, 지령 2000호를 향하여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질주하기를 소망한다.

Jesus Centered News, 역사가 되다!

2000년 1월 9일, 지령(紙齡) 1호가 발행된 이래 2019년 4월 28일에 드디어 지령 1000호가 발행된 Jesus Centered News, 그 20년의 역사는 이제 단지 교회 신문의 영역을 넘어 우리 교단의 역사가 되었다고 자부한다.

새천년 들어 인도네시아(Indonesia) 자카르타(Jakarta) 집회를 시작으로 우리 앞에 활짝 열린 해외선교사역의 생생한 현장들, 예루살렘기도원 호텔 건축과정, 인천예수중심교회 건축과정, 그리고 전 세계 목회자 1,000여 명을 초청하여 매년 우리 교단 영성훈련의 요람인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에서 진행되었던 세계 목회자 영성세미나의 뜨거웠던

을 새워가며 작성한 기사와 함께 DHL, Fedex 등 국제항공우편으로 송달하곤 하였다. 간혹 배달지연사고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왜냐하면 기사 마감시간을 넘기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국내 파트는 준비상 상황을 타개하느라 노심초사하곤 하였다. 비록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고 인터넷 전송이 가능해졌을 때조차도 남미 및 인도(India), 아프리카 등 인터넷 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서 사진 파일과 기사를 송고하는 일은 말 못할 애로가 참 많았다. 국내에 비해 턱없이 느린 인터넷 환경은 언제나 기사 마감시간을 애타게 했고, 자료를 받아야 하는 국내 파트는 컴퓨터와 시계를 번

그리고 이 지면을 빌어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것은 Jesus Centered News의 탄생부터 발전과정,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냉철한 독자로서 지도편달을 멈추지 않으시는 목사님의 열정이다. 신문을 제작하는 편집국 담당자들에게 가장 까다로운 독자이셨지만, 그로 인해 우리 신문이 오늘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고, 지령 1000호에까지 이르는 대역사를 지속해올 수 있었다. 신문제작 초기에는 열 번, 스무 번의 수정이 보통이었다. 이는 오로지 예수중심의 이름으로 나가는 신문이 명작이어야 한다는 목사님의 철학이 편집국 신문제작팀 모두에게 철저히 전염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목사님이 늘



지령 1000호를 돌파한 Jesus Centered News는 예수중심의 역사가 되고 있다

현장들, 2013년부터 9차에 걸쳐 서울시 청광장과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등에서 진행되었던 국가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성회의 역사 등, 지난 20여 년의 Jesus Centered News를 넘겨가며 거기에 인쇄되어있는 사진들만 일별해보아도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모든 기록들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생생히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카메라가 일상화되기 이전, 그리고 인터넷이 지금처럼 활성화 되지 못했던 초기에는 남미나 아프리카(Africa) 등 먼 지역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분주한 작업이 필요했다. 먼저 집회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현지 현상소에서 인화하고, 밤

같이 바라보며 전전긍긍하곤 했다고 한다. 돌아보면 그 일들을 어찌 다 수행해왔는지 감회가 새로울 뿐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이 일을 수행하며 편집국장을 비롯한 디자이너, 필진들이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Jesus Centered News 신문을 1호부터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보로 자손들에게 넘길 계획이라고 말하는 열혈독자로부터, 신문 기사를 보고 목회에 적극 활용한다거나 전도지로 사용되는 신문을 보고 교회에 나왔다, 매주 신문을 통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에 큰 도전이 된다고 고백하는 간증 등,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신원해주시니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다.

강조하시는 예가 있다. 설교에서도 자주 언급하셨던 내용인데,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명화 ‘벤허’가 100번의 시사회를 거쳐 완성되었다는 일화이다. 따라서 보고, 또 보고, 수정에 수정을 거듭할수록 명작이 된다는 생각이 우리 편집국 담당자들에게는 깊이 세뇌되어있다. 이런 관심과 노력이 모아져 오늘의 Jesus Centered News는 기록을 넘어 역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부디 이 식지 않는 열정이 세대를 이어가며 우리 교단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염되어, 대한민국 교계를 일깨우고 전 세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에 우리 Jesus Centered News가 지속적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한은택 목사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15:1~26)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망한 자다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이런저런 얘기 끝에 부활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파하고 나오면서 어느 목사님이 작은 소리로, “그런데 진짜 부활이 있긴 있는 거예요?”라고 옆의 목사님께 물었더니, 그 목사님 왈, “글쎄요, 가봐야 알지요.”라고 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스스로 고행하거나 도를 닦아 어느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종교입니다(고전15:3~4). 다시 말해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믿으면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고전15:20~21).

핍박과 순교가 오더라도 예수는 증거되어야 한다

계란 속의 병아리에게 계란 껍데기가 깨지면 다른 세상이 있다고 말한들 어떤 병아리가 믿겠습니까? 올챙이가 개구리가 될지 누가 알았으며, 번데기가 나방이 되고, 구더기가 파리가 되는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기한이 차니까 병아리가 나오고, 기한이 차니까 개구리가 되고, 기한이 차니까 나방이 되고, 파리가 되었습니다. 믿든 안 믿든 우리도 기한이 차면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거기에 분명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했지요? 맞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또 부활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믿는 자만 부활하는 줄로 아는 겁니다. 아닙니다. 때가 되면 누구든 죽고, 죽은 뒤에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부활합니다. “저희의 기다리는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행24:15). 사람은 영존체(永存體)이기 때문입니다. 1차 죽음인 육신을 벗어

던지고 나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히9:27). 이 심판의 기준은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의 법대로입니다(요5:30).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행한 대로’인데(마16:27), ‘무엇을 위해 살았나, 얼마나 애썼나, 끝까지 견디었나’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영원한 멸망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5:28~29).

여러분, 꿈이 있는 자는 지치지도,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신



총회장 이초석 목사

앙 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고, 때론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은 이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있는 저 천국에서 살 소망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8:18)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히11:36~38)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죽음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을까요?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들의 죽음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전하는 것도, 우리의 헌신도 다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분명히 있기에,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가련한 자 같으나, 없는 자 같으나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아파트 당첨이 되어 입주날짜를 기다리는 사람도 행복할진대 천국입성이 예정되어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가만히 눈을 감고 천국을 그려보세요. 황금 길에 수정 같은 물이 흐르고, 해와 달이 필요 없이 밝은 곳, 죄악이

없고, 사자와 아이들이 같이 뛰어노는 곳,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여 천국까지 무사히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외국에 오랫동안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자식을 불러 큰돈을 건네며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더라도 이 돈만 가지고 있으면 살 수 있단다. 돈을 주면 먹을 것은 물론이고, 차도 사고, 학교도 갈 수 있고, 필요하다면 경호원을 살 수도 있단다. 그러니 이 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라. 네가 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 나쁜 놈들이 네 돈을 노릴 거고, 너를 찌기도 할 거야. 절대 넘어가지 말고 아버지가 올 때까지 돈 관리 잘해서 편히 살고 있거라.” 이 말인즉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요14:3~16)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요, 연장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요20:22)고 하였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눅24:49).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어찌했습니까? 세상에 나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되어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요15:26).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나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쥐꼬리만 한 지식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설명할 수 없을뿐더러, 인간의 힘으로는 백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 전해야 합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바로 믿음의 선전들처럼 ‘성령을 받았으면 세상으로 나가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 외에 없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는 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4:16~17). 반드시 이날은 우리에게 옵니다. 이날은 주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은 천사의 손에 이끌려 하늘로 올리우게 됩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좁은 길을 가는 동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부활의 소식을 만방에 전합니다. 이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뿐 아니라 그날에 받을 상도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딤후4:7~8).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는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재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최고의 승리자는 죽음 다음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 4:1~2)

교회신문 1000호를 축하하며



두꺼운 켄트지를 신문 크기만큼 오려서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을 오려 덕지덕지 붙여가지곤 신문 모양을 만들어서 총회장 목사님께 교회신문을 만들겠다고 허락해달라고 쫓아다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지령 1000호, 어언 20년이 흘러갔네요.
그동안 많은 일꾼들의 손을 거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신문을 매주 기쁨으로 받아볼 수 있으니 얼마

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신문을 통해 은혜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목을 마련했고, 수많은 영혼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해오게 하신 주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성도가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낙심하여 교회와 멀어지고 주님을 떠난 지 3년여 지난 어느 날, 우연히 길거리에서 나이 많은 권사님이 교회신문을 전해, 그 신문을 받아들고는 목사님의 사진과 글들을 보면서 울컥하여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 못하고, 그 주간부터 다시 교회를 찾아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서선교에 힘쓰고 원고로 기부하는 많은 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새겨봅니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은

혜와 생명이 넘치는 글들을 가득가득 매주 퍼 나르는 문서선교팀의 땀과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을 올려주시는 총회장 목사님! 글을 볼 때마다 탄성이 절로 나오는 정말 은혜로운 글들, 설교와 봉우컬럼, 성경에세이, 때로는 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름답고, 때론 심령을 울리는 좋은 글을 수없이 기도하면서 기고하시는 주의 종들을 비롯한 많은 필진들에게도 진심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내용을 다듬고 편집하여 변함없이 성도들의 손에 들려주는 사명을 다하는 신문 편집국 직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감사와 축복을 드립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

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막4:26~29).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찌어다”(욥8:5~8).
그 시작은 참으로 미약했으나 어느덧 1000호의 열매를 맺은 우리 교회신문, 이제 지령 2000호를 향해 더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라며 주의 은혜와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서울예수중심교회 담임 이시대 목사

교회신문 1000호, 하나님께 영광!



2019년 4월 28일, 교회신문이 어언 지령 1000호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소중한 한 글자, 한 문장에 사랑과 열정을 쏟아부어 오늘의 신문이 있도록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1000호 교회신문이 나오기까지 일등공신은 여전히 이초석 목사님입니다. 주일설교 말씀을 비롯하여 골수를 파고드는 보석 같은 봉우컬럼과 성경에세이 등 신문의 가장 중추적인 글을 쓰고 계십니다. 이시대 목사님, 신기류 목사님, 신현명 목사님은 목회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명품 ‘객원칼럼’으로 우리의 심령을 확 깨워주고 있습니다. 상화평 목사님은 객원칼럼과 더불어 굿뉴스로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상욱 목사님은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 임택함 목사님과 송직화 목사님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또 박덕규 목사님은 ‘진리의 학당’을 통해, 권문선 선교사님은 ‘주안에서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 지식을 함양케

하시고, 김경숙 목사님은 ‘일본에서 온 편지’로 우리의 심령을 울리십니다. 한은택 목사님은 카버스토리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국내외 전도사역과 성령의 역사를 실제 상황보다 더욱 실감나게 전달하고, 객원칼럼으로 우리에게 감동의 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옥 전도사님은 ‘참된 깨달음’으로, 이정금 전도사님은 ‘세상을 보는 창’으로, 신혁주 전도사님은 ‘신앙논객’을 통해 예리하고 정금 같은 필체로 신앙의 정수를 알려주고 있고, 이광주 전도사님은 ‘오늘의 메시지’를, 이현승 전도사님은 ‘소망의 언덕’을, 이은총 전도사님은 ‘연단을 넘어’를, 문하은 전도사님은 ‘문을 열라’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져야할 신선한 믿음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춘철살인의 좋은 글과 아름다운 디자인, 그리고 생생한 간증으로 교회신문을 장식해주신 많은 봉사자가 있습니다. ‘To be succeeded’를 통해 믿음으로 성공하는 삶의 방법을 제시하는 이국진 사모님과 ‘삶이 있는 이야기’를 적어주시는 이호은 사모님, ‘생활 속의 잠언’을 통해 우리 삶의 좌표를 제시하는 오자유 집사님, 의학박사로서 우리 교단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나도 건강할 수 있다’의 의사 조희경 집사님과 한의사이신 설재현 집사님, ‘귀를 기울이세요’를 통해 사회적 이슈를 믿음의 글로 잘 승화시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송현혜 자매님, ‘성경에서 배우다’

를 통해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제시하는 하인명 자매님, 차세대 국문학 박사로서 문서선교부의 총무 역할까지 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기쁜 마음을 선사하는 전훈지 자매님, 역동적 젊음이의 실천적 삶의 메시지를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을 통해 전달하는 신은혜 자매님, 주식투자의 전문가로서 ‘객원칼럼’을 통해 믿음을 바탕으로 한 자산증식의 지혜를 우리에게 선사하는 이미경 권사님과 사업관계로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도 객원컬럼을 통해 세계경제의 흐름을 알려주시는 임윤석 집사님, 차세대 컴퓨터공학 박사로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 이제는 성숙한 믿음을 아름다운 글로 보여주는 김성일 형제님, ‘아름다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영상 사업가로서의 영역을 굳건히 다지고 있는 이은성 형제님, ‘치우치지 않는 저울’을 써주시고 계시는 차세대 법조인 정명관 형제님, 멀리 제주도의 대학 강단에서 강의하시면서도 ‘한라에 핀 사론의 꽃’을 써주시는 철학박사 권정미 자매님, 엘리트 코스를 제대로 밟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써주시는 김대화 성도님과 자수성가가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시는 ‘울림있는 삶’의 추성숙 집사님이 계십니다. 또 늘 진솔한 자신의 이야기를 수필 형식으로 써주시는 ‘신앙에세이’의 박찬영 집사님과 삶의 모범을 제시해주시는 ‘빛이 되리라’의 장명훈 집사님, 그리고 향수

업계의 촉망받는 CEO로 ‘에텐으로 귀환’의 김은유 집사님, 항상 교회에서 자막을 통해 봉사하시는 ‘부르심의 소망’의 박영신 자매님들의 글은 진솔함이 묻어져 나오는 글입니다.
그리고 신문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시는 신은유 자매님과 박소영 자매님, 그리고 우리 신문에 만화 삽화를 제공하는 김덕장 형제님, 캘리그래피로 말씀을 전하는 강혜진 자매님, 그리고 디자인을 총괄하는 임지혜 자매님, 이외에 신앙 간증과 교회신문을 위해 기고한 많은 분들이 모두 우리 신문의 오늘을 만든 주인공입니다. 특히, 신문 편집국장 신영심 전도사님은 주일설교 말씀 요약, 교단소식, 인터뷰 기사, 특별 기획기사 등을 주관집필하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 중의 하나인 집필 섭외를 하는 등, 신문에 온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가장 중추적인 실무 봉사자입니다.
우리 교회신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교단 및 교회에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구현되는 다양한 소식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는 매체입니다. 이를 통해 교단과 민족, 세계를 위해 섬기는 교회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중심교회의 선교활동을 국내외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은 이제 2000호를 향해 달려갑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문서선교담당 이관섭 장로

제2의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1984년 6월 1일,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전국으로 전속을 다니면서 복무한 지 35년 8개월, 전역하여 제2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군 생활이 왜 이리 험난한지 수없이 매를 맞고, 밤에 잠을 못 자며 나라를 지켜야 하고, 각종 검열, 훈련 등등, 강도가 점점 강하게 다가와서 정말 힘들어 자살하려고 자포자기까지 갔을 때 저의 손을 잡아준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모님의 전도가 제 인생을 360도 바꾸어놓았습니다. 교회 나가기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이 제 가슴속에 들어와 계셨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술과 담배도 끊었고, 전속 명령이 날 때마다 '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국을 돌며 군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많은 간부와 병사들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들 영혼을 구원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수록 마귀는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

았습니다. 전역을 5년 앞두고 부하인 신병이 그만 제가 휴가 중에 생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각종 매스컴에 연일 보도가 되고, 검찰 조사와 처벌을 받고 불명에 전역을 할 수밖에 없는 끝자락에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잠을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이 흥해 앞바다에 선 모세 같은 심정이었고, 자살 충동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초석 목사님의 음성이 저의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녹음된 목사님의 방언 기도를 밤마다 들으며 힘든 상황을 이겨냈고, 이 사건은 8개월이 지난 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저의 군 생활 35년 8개월은 물 없는 사막을 걷는 외로운 길, 나라가 원하면 언제든 목숨을 가장 먼저 던져야 하는 길이었지만, 목사님의 주옥같은 살아 숨 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로 하여금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목사님의 사명길은 교단과 집에서 쫓겨나고, 이단으로 정죄되어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오신 오직 한 길이었습니다. 차선이 아닌 최선을 다하는 그분의 열정을 닮아 저의 가슴은 지금도 용광로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목사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군 생활에 활력과 재충전을 얻었으며, 제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목사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것입니다.

15년 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쭙보

았습니다. 이초석 목사님이 정말 이단인지 꿈으로 알려달라고 기도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그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매우 큰 호수 주변에 수많은 쥐들이 죽어있었으며, 하늘은 검은 구름이 가득 차 있었고, 저 멀리 야외에서 집회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이 가보니 하얀 양복을 입은 한 사람이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단상 쪽 하늘 구름이 찢 갈라지며 목사님에게 강렬한 햇빛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저에게 들립니다. "저기 서있는 목사는 이초석 목사이고 참 좋으니라. 의심하지 말고 믿고 따라가라." 이 음성을 들은 이후 저는 목사님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을 비방하고 떠나는 목사와 성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모든 분야에 최선을 다하시는 목사님과 죽는 그 날까지 함께 할 것이고, 천국에서 목사님의 상을 같이 받을 것을 맹세하며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안수집사가 되겠습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귀는 막고 앞에서 달리는 목사님을 위해 늘 기도드리며, 저의 제2의 인생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부산예수중심교회 김종길 안수집사

세상을 향한 1000번의 명징한 울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글로 성경을 남기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 내가 하는 말과 글은 또한 나이다. 교단의 신문 역시 우리 교단의 얼굴이자 실체이다. 1000번을 주

옥같은 간증과 말씀으로 채운 우리 신문이 이 세상을 얼마나 변화시켜 왔을까. 말씀과 글의 에너지로 우리의 가슴속에 묵직한 감동을 던지고, 또한 전도의 횃불로서 그 사명을 다해왔을 것 아니겠는가. 신문만을 기다린다는 분들, 60여 평생 깨닫지 못해 고통받았던 삶의 문제를 해결 받았다는 분.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연단된 분들의 귀한 말씀의 역사하심 아니겠는가. 더욱 귀한 것은 목사님을 필두로 하여 너무나 다양한 분들의 육성이 어떤 가치과 의도 없이 진심으로 토로된다는 점

이다. 세상의 어떤 글들이 이와 비견될 수 있을까. 목사님의 골수를 쫓개는 말씀부터 덜 다듬어진 대로 원석 그대로의 가치가 고스란히 담긴 글들, 저마다의 처지와 환경에서 느낀 귀한 감동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루며 귀한 영적 자양분을 이루게 하였으니 대단한 일이다. 성령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밝히 드러나는 사역이 아닐 수 없다. 무려 1000번을 세상을 향해 명징한 울림을 지속해오도록 애쓰신 분들께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올린다.

이광주 전도사

1000번째 거룩한 외침!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룩한 외침을 담은 교회신문의 10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때로

는 전도지로 사용되어 복음전파를 담당하고, 때로는 성도님들의 신앙을 일깨우는 귀한 사역을 톡톡히 감당한 우리 교회신문은 한 호, 한 장이 한 명의 선교사이자, 설교자였습니다.

예배 전후 성도님이 신문을 정독하시는 모습, 어느 골목 집 문에 끼워진 신문 한 장이 주는 거룩한 부담감 덕분에 기고(起稿), 편집하는 순간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신 목사님 이하 편집국장님,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문 속 코너들마다 그분

들의 기도와 숙고가 느껴지지 않은 부분이 없었고, 그래서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꼭 신문을 찾아 읽고, 수집하고, 곱씹으며 신앙을 점검하고 삶을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세상의 변화를 다양하게 담아주시길 기대하며, 무엇보다 신문을 통해 말씀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인명 집사

Good News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만물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봄에 피는 꽃들은 타이머나 온도계를 부착해놓는 것도 아닌데 때가 되면 정확하게 꽃이 피어납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 망망대해를 건너 이역만리 타향에서 3년간 살아가다가 산란기가 되면 다시 바다를 건너 자신이 태어났던 고향 하천으로 돌아와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도 없고 나침반도 없는데 잘도 찾아옵니다.

철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먼 길을 떠날 때 V자 편대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70%의 힘만 사용하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동식물의 본능은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만 심어놓은 본능도 있습니다.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영원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은 죽은 뒤에 가는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는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영벌의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선택은 우리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번째 나타나시리라”(히9:27~28).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생은 내가 쓰는 자서전이다
결말이 멋진 작품을 만들자